

2018 국가직 7급 마형 국어 해설과 총평

제공 : 유두선

1. ③ ‘례, 예’는 [례]로 발음한다. [차례]가 바른 발음이다.

<오답풀이>

- ① 두 번째 음절의 ‘의’ [의/이]로 발음
- ② 두 번째 음절의 ‘의’는 [의/이], 조사 ‘의’는 [의/에]로 발음
- ④ ‘례’는 ‘예’와 ‘례’를 제외하고는 [례/례]로 발음

정답 ③

적중! 2018 선국어 약점체크(I) 6차 19번 유사문제

19. 다음 중 표준 발음에서 두 가지로 발음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단어가 들어 있는 것은?

- ① 계집, 지혜, 예의
- ② 협의, 우리의, 피다
- ③ 띄어쓰기, 맛있다, 기어
- ④ 검열, 희망, 야금야금

2. ‘자의성’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글이다. ④ 사랑이란 보편적 개념이 유사한 형식으로 기표되지 않는다. 미국에서 love라 표현하고 우리는 ‘사랑’으로 표현한다.

<오답풀이>

①, ③는 자의성에 대한 예이고 ②는 사회성에 대한 개념이며 마지막 줄에 자의성이 사회적 약속으로 바뀔수 있다고 나와있다.

정답 ④

3. ① 이글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찬미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.

<오답풀이>

- ②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중심
- ③ ~주겠다 를 반복하여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.
- ④ ‘내’가 ‘너’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

정답 ①

적중! 2018 선국어 2권 101쪽 2번 동일작품

4. ② 상업시설 언급, 다른 손님 받지 못한다, 특정인을 위한 전용버스를 예로 들어 생각 유도.

<오답풀이>

- ① 상대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환기시키지 않았다.
- ③ 사회자는 주장을 관철하지 않는다.

④ 적극 동조하고 있지는 않다.

정답 ②

5. ③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바르게 연결되었다.

<오답풀이>

① ‘것은’이 ‘이유’에 해당하므로 서술어는 ‘의도가 있기 때문이다’로 고쳐야 한다.

②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양쪽 구조가 같아야 한다. ‘식단을(O) 마련하고(P)’로 고쳐야 한다.

④ ‘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’로 고쳐야 한다.

정답 ③

적중! 2018 선국어 약점체크(I) 15차 14번 유사문제

14.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?

- ① 더욱 큰 문제는 이산 가족의 대부분 이 고령자로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.
- ②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
- ③ 행복은 명예와 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추구해 가는 마음에 있다.
- ④ 우리가 에너지를 아껴 쓴다면 자원의 낭비도 막고 깨끗한 환경도 유지할 수 있다.

6. ④ ‘~나바’는 뒷말에 보충 설명이 오는 것을 뜻하는 어미

<오답풀이>

① ‘걸어오다’는 사전표제어이므로 붙여 쓰고, ‘~데’는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.

② ‘쓸데없는’은 관용적으로 붙여 쓴다.

③ ‘지’는 시간 개념일 때만 띄어 쓰고 ‘~가’로 바꿀수 있으면 붙여 쓴다.

정답 ④

7. ③ <보기>는 ‘앞으로의 일에 대한 희망 따위를 품거나 기대하다’의 의미

<오답풀이>

①, ②, ④ 목숨, 명예 따위를 담보로 삼거나 희생할 각오를 하다.

정답 ③

적중! 2018 선국어 3권 355쪽 38번 유사유형

8. ‘~게 되다’로 고쳤을 때 피동보다 과정화의 의미가 강한 것을 찾으면 된다.

③ ‘그 가게에 잘 가지 않게 되다’와 같이 과정의 의미가 더 자연스럽다.

정답 ③

적중! 2018 선국어 약점체크(I) 10차 19번 유사문제

19.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성격이 다른 것은?

- ① 길이 갑자기 없어졌다.
- ② 손에 굳은살이 박였다.
- ③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다.
- ④ 철수에게 의심받자 기분이 상했다.

9. ㉠에서 방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수리하는 비용이 더 들고 나라를 바로잡기 어려운것을 깨달은 것이다.

정답 ③

10. ① 방약무인 : 사람이 없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함.

<오답풀이>

- ② 좌고우면 :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것저것 눈치만 살피는 모습
- ③ 불치하문 :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부끄러워 하지 말고 물어볼 줄 알아야 한다
- ④ 후생가외 : 젊은이(후학)들이 젊고 기력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선배보다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음을 이르는 말

정답 ①

11. ① 표정 연기의 실감을 극대화하는 내용은 없다.

<오답 풀이>

- ② 11째줄~12째줄, 19째줄
- ③ 15째줄~16째줄
- ④ 5째줄~6째줄

정답 ①

12. ② 부모은혜를 잊고 시신이 버려진 것이지 매장하지 않는 장례방식이 생겨난 것은 아니다.

<오답풀이>

- ① 밑에서 3째줄
- ③ 둘째단락 2째줄
- ④ 밑에서 4째줄

정답 ②

13. ④ 밑에서 9째 줄에 지혜로운 관리는 청렴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.

정답 ④

14. 작자미상의 시조이다. ② 일반인들이 반기고, 다투나 화자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조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.

<오답풀이>

- ① 내적갈등은 제시되지 않았다.
- ③ 의인화도 없고 대화 형식도 아니다.
- ④ 제재가 돈에 대한 생각이다. 신분갈등과는 관계가 없다.

정답 ②

15. ㉠ 説明 ㉡ 提示

정답 ②

16. ① 所期 → 기대한 바(바라는 바)

<오답풀이>

- ② 利子 → 변리 로 순화
- ③ 上申 → 알림, 여쭙으로 순화
- ④ 諒知 → 살피어 앎

정답 ①

17. ② 일방적인 상황, 즉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의 공포를 다루고 있는 글이다.

정답 ②

적중! 2018 선국어 2권 202쪽 9번 유사내용

18. ① 밑에서 11번째 줄에서 13번째 줄에 저장된 단어들에 청각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어휘 목록에 접속하여 의미가 활성화 된다.

<오답풀이>

- ② /d/를 들었을 때 구별
- ③ 발화하는 과정이 아니고 청각 체계이다.
- ④ 밑에서 3번째 줄부터 활성화 된다고 했다.

정답 ①

19. ② /-ㅅㅏ/는 ‘-야’와 대응된다.

정답 ②

적중! 2018 선국어 2권 452쪽 동일지문

20. ④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다.

<오답풀이>

- ① 첫째줄~둘째줄
- ② 밑에서 10째줄
- ③ 밑에서 3째줄

총평

2018년 국가직 7급은 문법 7문항, 독해가 8문항, 문학 3문항, 한자 2문항이 출제되었다. 우리가 예측한 대로 독해 비중이 매우 높아졌고 지문의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은 아니었다. 특히 한문 번역투의 수필 「이옥설」 「사우재기」가 출제되었고 「목민심서」와 관련된 글이 나왔다는 점도 유의하자. 체계적으로 독해 훈련이 절실히 된 것이다.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.

한자성어 문제도 넓게 보면 독해 지문으로 볼 수 있고, 용비어천가도 문학이기 보다 고전 문법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겠다. 고전문법은 아주 깊은 내용까지 출제되거 있다. 이러한 경향은 수능에서도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.

**2018 국가직 7급 국어의 자세한 해설강의는
유튜브에서 「국어선」을 검색하면 볼수 있습니다.**